



두엄누리회보

www.duem.or.kr

제21호 2005년2월26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 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성수기와 겹쳐 예상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해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총회가 늦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결산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2월 초순 이전에 총회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거가 있었다.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에 이어 실시된 회장선거는 봉동영농조합의 소병운 사장님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여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6일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입후보한 회원이 없었고 아직 협회의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상원 회장이 재추대 되었다.

취임 인사에서 김상원 회장은 협회 제 2기 출범에 대해 더욱 더 확실한 회원사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올해 어렵게 실시하게 된 생산능력 검증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제도를 보완하여 다소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보아온 행정당국과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회장선거에 이은 이사 선출은 각 지회에서 선출된 도지회장이 이사로 등재하기로 되어있어 빠른 시간 내에 각 도별 지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 협회 사무국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다음 2005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통과에 이어 실시된 이사회 위임 결의안은 출하 전 품질검사 중 올해부터 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시료 채취에 관한 출장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단체 품질 인증제도에 관하여 그동안 주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관계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화 되는 상황에 따라 신속해 대처하기 위하여 그 결정을 이사회회의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공정 규격의 수분 규

의 소리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 대행기관인 농협이 별도의 운용 기준을 두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위축될 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로 참석한 김상원 회장이 수분 규제에 대한 문제만 현실적으로 해결된다면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제의에 전체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끼리 충분히 협의하여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그 외 현재 농협에서 시행하는 납품업체 관리는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와 생산자 단체에게 확실하게 맡기기로 하였다.

업계의 요구 사항으로는 유기농산물 인증단체에서 요구하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맞는 퇴비기준에 대하여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비료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어렵다면 일선 공무원이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퇴비도 CODEX 기준에 맞는 제품이어서 한다는 잘못된 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만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화학 비료의 사용을 기피하는 이 때 기준에 생산되던 퇴비마저 외면하게 된다면 대다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박이나 면실박 등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축분 처리를 곤란케 하는 등 자국내 생태계 순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퇴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료 관리법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었다.

현재의 법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서의 생산량 1.5톤 이하에 대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생산 하는 양이 이 기준 이하인지가 애매모호해진다.

바로 이 틈새를 이용, 모든 무허가 비료들이 이것으로 관리법을 피해 나가고 있다.

이 조항은 축산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여 줄 생각으로 시행한 것이나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저질 불량 비료가 유통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축분을 사용한 퇴비의 전체적인 인식이 나빠지게 된다.

즉 실제로는 이것이 축산분뇨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고 있는 발생량 원단위 기준을 참고하여 생산량이 아닌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화학비료 보조가 중단 되면

퇴비와 유기질 비료의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는 안정적인 비료 공급을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 비료 공급을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이렇게 농협이 전담하던 화학비료의 유통 체계에 일대 변화가 오게 된 것이다.

당연히 화학비료 생산업체는 농협에만 의존하던 유통경로에 다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친환경

제 조항에 대해 현실적인 수치로 개정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으며,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 설치 기준의 간소화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무허가 비료의 강력한 단속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폐회 이후에는 대전에 소재한 과학기술 분석 센터에서 광촉매를 이용한 악취제거 시설에 관해 소형시스템을 갖고 와 시험 가동 및 설명회를 가졌다. 관심 있는 회원사는 연락해 보기 바란다(연락처 : 과학 기술 분석센터 전화 042-931-2511~7 고객지원팀장 손영희).

비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지난 3월 15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는 2005년도 제 1차 비료 전문가협의회가 열렸다. 정황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따른 퇴비 및 유기질 비료의 지원 확대 계획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되었다.

협의회 구성은 농림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농협중앙회 비료팀, 지자체 비료담당 공무원, 비료공업협회, 그리고 남해화학 비료 팀과 우리 부산물 비료 업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마도 공정규격 심의 위원회 말고는 화학비료 업체와 퇴비 생산업체가 관계 공무원과 한 자리에 앉아 보는 것이 처음 아닌가 싶다.

이는 전 세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급속한 증가로 정부 정책이 친환

경농업 육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퇴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입증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 비료가 기계자재과에서 농산경영과로, 그리고 현재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주무부서가 옮겨진 후로 처음 갖는 이번 회의는 정부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회의에 제출된 농림부 계획을 보면 91년부터 실시되던 화학비료의 판매차손보전 지원을 올해 안에 전면 중단하게 되고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현행 2.5%에서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20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을 40% 감축하고 퇴비 및 유기질 비료는 농업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 올 70만톤 수준의 지원을 150만톤 까지 점차 확대 지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 및 품질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 계약업체는 당해 시군구와 공동으로 제품단속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 도에서 관장하는 비료업무를 시, 군으로 이양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다음은 그간 많은 혼선을 빚어왔던 부산물 비료와 유기질 비료의 명칭에 대한 것이었다.

유기성 물질로 제조된 비료에 대해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유기질 비료란 단어를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퇴비의 보조사업 시행 후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퇴비생산업체 관리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 수와 영세한 규모로 저급, 불량비료 유통 가능성에 대한 염려

농업 육성 정책으로 사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 판매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각 회사는 회사별 판매조직인 대리점 망을 통해 판매하는 양이 늘어날 것이고 각 대리점들은 타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취급 품목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욕구가 생산업체에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퇴비 및 유기질 비료의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퇴비에 경우 OEM 방식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OEM방식의 생산을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 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업체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비종 간에 비교와 판매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농촌은 농가들과 농축산업의 생산 현장만이 아니다.

도시민의 휴양공간이자 문화공간이 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쾌적한 농촌 그 건강한 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기에 농업 정책은 친환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비료의 종목 간에 경쟁으로 이러한 대의를 저버리고 관행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축된 비료 효과만을 중요시하는 모순이 진행될까 몹시 염려스러운 것이다.

퇴비의 질소 성분 부족을 핑계로 무분별한 유기질 비료의 소비를 조장하여 유박 등 유기질 비료의 자재가 수입 되는 것은 반듯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나라 농지는 전체 비료 공급량이 토양의 양분수요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함에도 아직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오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한 흙과 함께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갈수 있는 것은 오직 퇴비의 소비 확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된다.

협회 소식

- 이달 말까지 보고하는 생산능력 검증은 회원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 되어 간다.

모든 회원사가 생산 설비와 제조 방식에는 남다른 노하우가 갖춰져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생산량 검증에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그 기준을 정하는 일 에서는 개개인의 특성까지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일부 업체가 이제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왔는데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는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보호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규제하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두가 긍정적이 생각으로 협조해주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며 이 제도의 시행이 우리업계가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 협회 회원사중 강원도 남면 영농조합 전주영 사장님께서 정선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 033-591-7008 011-9790-1468